

# 눈덩이 적자에...전남대병원 200억 '마이너스 대출'

### 정형외과 병동 1개 추가 폐쇄 예고 등 광주 상급병원 복합위기 가시화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 집단행동 움직임...의대생 수업결손 유급 우려

전공의 집단이탈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의 복합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상급병원들이 축소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돼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까지 가시화 하면서 '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신청에 따른 학사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어 수업결손으로 인한 유급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급병원 의료 붕괴 심화=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의 의료붕괴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1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본원 1동 B 비뇨기과 병동과 8동 11층 성형외과를 폐쇄한데 이어 추가로 1동 7A 정형외과 병동(병상 40개)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 몇 주간 정형외과 수술이 감소한 탓에 7A 병동가동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환자가 없던 7B(병상 9개)로 이동 시켰다.

7A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간호사 인력을 중환자실, 병동에 재배치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응급환자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고 신규 외래 진료를 받지 않고 입원환자를 최소화하는 축소운영을 한달째 이어가면서 전남대병원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예비용으로 개설해놓았던 3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태가 촉발된 지난 2월에 140억원을 운영비로 담겨 썼지만 모두 소진해 3월 초 재차 60억원

의 대출을 받았다.

현재 추세라면 4월과 5월에도 각 100억원씩 더 대출을 해야 할 것으로 전남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본 경비에 기존 적자까지 포함되면 전남대병원의 경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조대 의대교수 집단행동 가시화=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위한 절차를 들어갔다.

17일 전남대 의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SNS단체방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위 구성 이후 다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 긴급회의 결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교수평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비대위 구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과 행보를 같이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다.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면 광주·전남 지역 상급병원의 운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유급 위기=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학사파행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다음달 26일까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25일까지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고 휴학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휴학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이날까지 지속되면 의대생들은 유급이 확정된다.

전남대는 3월 25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나 학생들이 거부하고 있다.

대학들은 '집단유급 데드라인'인 다음 달까지만 사태가 해결되면 야간수업과 방학기간 계절수업 등을 총동원해 수업 시수와 일수를 맞추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강이 계속 뒤로 밀린 후 한꺼번에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물론,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화마에...장애인들 안타까운 참변 잇따라

### 장흥·광양서 화마 휩쓸려 숨져

전남에서 장애인 이 화마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장흥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50분께 장흥군 한 목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을 모두 불태우고 30여분만에 꺼졌으며 집안에서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거주 중이던 아버지는 대피했으며, 어머니는 출장 근무 중이라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급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을 깨우고 옷을 갈아입도록

한 뒤 먼저 빠져나왔는데, 돌아보니 아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기적 요인(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께 광양시 광양읍 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에서 발달장애인 B(3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함께 지내던 가족 2명은 대피했으나 아들 B씨를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며, 약을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져 대피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경찰, 국과수 등과 협력해 두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며 속여 환불 받고 상품 되판 '암체 사기범' 구속

광주·전남에서 자영업자를 속여 돈을 벌린 뒤 값지 않거나 택배 거래 물건을 빼돌려 재판매한 사기범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며 환불을 받고 '미개봉 신상품'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4차례 더 범행을 했으며 같은 기간 이웃집에 배송된 물품도 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측이 분신신고한 휴대전화의 고유번호를 다른 중고품 거래 구매자

가 등록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에서도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빌려 달아난 60대 B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와 목포, 순천, 전북 익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 20명을 물건을 다량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지갑을 놓고와 당장 돈이 없다"며 교통비 명목 등으로 총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무직자로, 빌린 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 배우는 덴마크 학생들 덴마크 실케보르(Silkeborg)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 35명이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를 돌아보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18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5·18을 공부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 서류가방 열자 일련번호 같은 5만원권 '수북'

강진서 위조지폐 유통 20대 검거

강진에서 위조지폐를 유통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50분께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위조지폐를

건네받던 A(20)씨가 위조통화 취득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SNS로 위조지폐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고 화물차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화물차에서 발견된 서류가방에는 일련번호가 같은 5만원권 위조지폐 968매(4840만원)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위조지폐 유통조직을 수사하던 경북 구미경찰이 강진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이용한 화물차의 운전기사는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지폐인 줄 몰랐고 단순히 전달받은 뒤 보내려고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